



농림부

수해 피해지역 영농자금 500억원 긴급 지원

농림부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다각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축사시설 및 가축입식비 등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도 현실화했다.

농림부 지원 대책 등에 따르면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농가의 피해율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해 주고, 500억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농가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이번 수해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1천여억원 규모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축종별로 축사시설 및 가축입식비 재해복구를 위한 산정단가도 상향조정하는 등 피해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한우 50마리가 폐사했을 경우 경영자금 1천만원에다 경영회생자금 1천만원, 재해선포지역의 경우 1천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 우사시설(1백50평기준) 복구 비용으로 6천여만원, 축산 분뇨시설(1백평기준) 복구 비용 2천6백여원, 육성우 기준으로 가축입식자금 7천8백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 피해농가가 받을 수 있는 총지원금은 1억9천4백만원이다.

농림부는 이와는 별도로 초동대응팀을 구성, 피해 현장의 긴급복구를 위한 지원과 농작물, 축산 등에 대한 기술지원단도 파견했다.

조기복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제 유지로 피해지역 긴급복구를 지원하고, 산하 및 관련기관·단체도 동원하여 긴급복구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피해 응급복구용 영농자재 공급을 지원하며, 기상여건 회복 즉시 농협·지자체·관련업체 등과 협조하여 농작물 방제·가축방역을 위한 소독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지난 7월 21일 피해가 심한 강원 횡성, 평창군 지역의 침수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재개를 돕기 위해 소속공무원 100여명이 참여,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또한, 농림부는 응급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하계휴가, 일반행사 등을 연기하고 비상체제를 가동키로 했으며, 농진청, 농협 등 소속기관·단체에서도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열어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경남도 진주시 등 5개 시·도,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표 1〉 재해복구비용산정 기준단가

(단위 : 원)

구분	종류	규격	단위	단가
축사	• 계사	산란계사	㎡	200,500
		육계사	㎡	168,500
	• 간이축사	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	39,000
축사부대 시설	• 분뇨처리 시설	닭(평사)	㎡	78,500
		닭(케이지)	㎡	78,500
가축입식	• 육계	병아리	마리	427
		중추	마리	740
	• 산란계	병아리	마리	611
		중추	마리	1,877
	• 오리	새끼(육용종)	마리	664
		중추(육용종)	마리	1,288

※ 가축의 육성 가축기준 - 육계 : 20일령 이상 또는 600g 이상

〈표 2〉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 및 지급절차(농림부 고시 제2006-35호)

구분	내용
선지급 대상	•농경지, 농업시설 및 농작물, 축산물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선지급 비율	•농업분야(농경지, 농업시설 및 농작물, 축산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재해복구비 선지급 비율을 100%로 한다. 다만, 농경지 복구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할 수 있다. 가.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30%(지방비로 지원하는 금액) 나.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복구비의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
지급 절차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분야(농경지, 농업시설 및 농작물, 축산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피해를 확인한 후 선지급 비율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나. 선지급 비율 '가' 호의 유보(후지급)하는 금액(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30%)은 공사 진척에 따라 지원한다. 다. 선지급비율 '나' 호의 유보(후지급)하는 금액(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은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한다.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대책 추진

농림부는 하절기(장마·수해·혹서) 다발 가축질병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평시 방역체계 전환과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등에 따른 방역 경각심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송부했다.

이 대책은 하절기 가축질병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장마, 수해, 혹서기별 일반 방역관리 요령 및 축종별(소, 돼지, 닭) 주요 질병 예방관리 요령을 담고 있다.

농림부는 일선 축산농가에게 '하절기 가축질병 방역관리 대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에 협조 요청했으며, 하절기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함께 시설·위생·사양 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했다.

가축공제 가입 농가, 금번 수해 피해 복구에 공제금이 큰 도움 돼

지난 7월 중순 강원과 남부지역에 발생한 수해로 인해 피해를 본 축산농가 중 17농가가 가축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농가는 피해정도 및 공제가입 규모에 따라 호당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억6백만원까지 공제금(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금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축공제 가입 농가들은 공제가입 내용에 따라 축사 및 가축 피해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받아 경영안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공제사업은 축산농가가 풍수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축사 피해에 대비토록 하는 사업(보험)으로 1997년부터 가축에 한해 농가 부담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2005년말 축종별 가축공제 가입률을 보면 소의 경우 7.3%, 양돈 57.6%, 양계 3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축산농가의 가축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공제로 일시납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로 분납(년 2회)제를 실시하며, 매년 가축공제가입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가고, 내년 1월부터는 가금류의 설해(눈) 피해 등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간 특약으로 운영되어 농가가 공제로 전액을 부담하던 축사에 대해서도 농가 부담이 경감되도록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축산부문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워크숍 개최

농림부는 농축산업부문의 개방 확대에 대비,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중

양회 축산경제와 지난 7월 21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림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축종별(한우, 양돈, 양계, 낙농, 양봉) 경쟁력 제고 대책 방안을 설명하고 농협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향후 축산업 발전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부는 한우는 품질고급화 및 광역단위 브랜드 경영체 조직, 양돈 및 양계는 축사시설 현대화·규모화, 낙농은 시설자동화 및 수급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특별교육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7월 21일 본원 대강당에서 녹색소비자연대 등 9개 단체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2006. 3. 24)과 관련한 닭고기·오리고기 포장유통, 농장부터 판매까지의 일관된 HACCP 도입 운영, 축산물수입 판매의 관리를 시·군·구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내용과 올 1월 1부터 시행하는 표시기준 중 가공과

정에 사용한 전체 원재료 표시, 원재료에 대한 함량 표시, 영양 성분표시, 포장육의 부위명 표시강화 내용과 앞으로의 표시사항 개정 보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위생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중점감시항목, 지도점검 및 조치요령, 위생점검 실명제, 압류·폐기 요령,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역할과 각 업종별 단속작업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바라보는 축산물위생·안전관리 및 감시활동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사항 등에 대해 질의 및 토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에 대한 이해 및 감시활동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검역원에서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함께 축산물 위생감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 추진 현황 현장 보고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지난 7월 21일 충북 음성소재의 우유가공장인 건국유업 및 아이스크림제조 공장인 비알코리아(베스킨라빈스)에서 소비자단체와 관련협회, 학계, 지자체 및 농림부 관계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상반기 축산물위생관리 추진현황 현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소비자·관련협회·업계·학계 관계자에 대하여 검역원의 2006년도 상반기 축산식품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검역원 회의실이 아닌 생산현장에서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현장견학과 함께 개최되어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및 추진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4월 21일에도 닭고기 위생을 테마로 마니커 동두천공장(도계장)에서 축산물위생관리 추진현황 현장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업계에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련 제도, 수출입 동물 축산물검역검사, 수입위험평가업무, 축산식품의 잔류물질 관리현황, 인수공통전염병 방제에 대한 중요 테마를 설정하여 생산 가공현장에서 담당 과장 등이 직접 설명하고 토의함으로써 소비자, 생산자 등 모든 참석자들이 축산물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 축산물에 대한 신뢰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들이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생제에 대한 검사강화 및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며, 검역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가 우리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단체 및 소비자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표명했다.

일부터 9월 29일까지 7개도 20시·군 27농가(돼지 13, 닭 14)를 대상으로 여름철 축사환경개선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여름철 축사환경개선 현장컨설팅은 축산분야 전문 농업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축산연구소 돼지·닭 분야 연구원으로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축사환기, 소모성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장에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기술을 컨설팅한다.

특히 컨설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연구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농촌진흥청 축산담당자는 “여름철 축사환경개선 현장컨설팅을 통해 축사환경 및 가축질병예방으로 가축의 생산성 증대는 물론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축산연구소

가축 개량목표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농협중앙회 및 한국종축개량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7월 21일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유통교육센터에서 현재 축산물의 소비행

농촌진흥청

여름철 축사환경개선 현장컨설팅 실시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집중호우, 소모성 질병 및 축사환경으로 인해 가축 폐사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 7월 27

태를 분석하여 중장기 소비동향변화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의 가축개량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에서 5백여명의 양축농가들이 참석해 새로운 개량지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그 동안 생산성 향상에 주력했던 가축개량이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량 목표를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윤상기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의 개량방향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에 발맞추는 동시에 건강, 환경, 안전성 등 폭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개량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의 ‘가축개량과 축산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각 분야별로 가축개량목표 설정을 위한 축산물의 소비 형태와 향후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양계 분야는 (주)하림 정호석 부장의 ‘닭고기의 소비행태와 전망’, 풀무원 구민회 부장의 ‘계란의 소비행태와 전망’, 한협축산 박성진 사장의 ‘재래닭의 소비행태와 향후 전망’, 강원대 이성기 교수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닭고기 식품의 이용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 노수현 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으로 축산물의 유통·소비행태 개관 및 전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행태 분석 및 중장기 소비동향변화에 대한 업계의 분석 의견과 향후 대처방안을 통해 현실성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 가축개량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마철 1사 1촌 자매마을 현지 축산기술 지원

축산연구소는 지난 7월 14일 제3호 태풍 예위니아

(EWINIAR)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 1사 1촌 자매마을을 찾아 축산 전반에 걸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가축방역팀은 류일선 수의연구관을 반장으로 부락 전체 연막소독을 비롯하여 침수되었던 축사 위주로 정밀방역작업과 질병진단, 치료를 병행해 실시했으며, 사양관리 전문가인 강수원 박사팀은 장마철 가축 사양관리 요령과 효율적인 사료급여 방법 등 축산농가에서 꼭 실천해야 할 일을 컨설팅 했다.

또한 축산환경과의 권두중 박사팀은 축산환경, 가축분뇨 처리 방법 등을 지도하며, 현지농가의 애로사항을 처리하여 마을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윤상기 소장은 “1사 1촌 자매결연마을의 여건이 어려울 때 기술지원을 하고 또 마을 주민을 초청하여 연구현장도 관람하는 등 명실공히 자매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수해피해 축산농가에 농협사료 무상지원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거나 고립된 축산농가에 대해 전국 7개 농협사료공장 및 지역축협을 통해 농협사료 10만 포대(약 8억원 상당)를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긴급 무상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중 사료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 강원 횡성 등 전국 7개 농협사료 공장을 통해 사료지원요청 접수 즉시 당일내로 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지원과 함께 7월 20일부터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해 ‘가축질병 예방접종 및 방역봉사반’ 10개

반, '축사전기누전 및 시설안전점검반' 10개 반을 각각 편성하여 대대적인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해 복구 위해 구슬땀 흘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은 최근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오세익 부원장을 비롯 32명의 직원들이 지난 7월 25일 강원도 횡성으로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수해지역 일손돕기는 지난 폭우로 심한 피해를 입은 횡성군 우천면에서 이루어져 망가진 용수로로 복구했다.

수해 복구에 참여한 직원들은 횡성으로 향하며 강원도 지역 곳곳이 폭우로 인해 폐허가 된 현장을 목격하고 한시 바빠 복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일처럼 구슬땀을 흘리며 용수로 복구에 임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여 성금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현안에 대해 논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7월 28일 서울 팰레스호텔에서 대표자 조찬회의를 갖고 축산물가공처리업무, 한·미 FTA 등 축산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FTA, 도축세 폐지, 농지법 개정, 축산물가공처리업무, 축사기반시설 분담금 등의 최근 축산 현안들에 대해 사안별 대응이 아닌 통합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하고, 금년 국회 회기내 처리한다는 목표로 지역 분위기 확산을 위한 도별 간담회 및 궐기대회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5억원 모금 운동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일부 사료업체에 협조를 의뢰했다.

한편, 도축세 관련 공청회는 오는 8월 23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대한영양사협회

'2006년도 전국영양사 학술대회' 개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곽동경)는 지난 7월 26일 ~27일 이틀간 서울 잠실 소재 롯데호텔 월드에서

전국의 산업체·학교·병원·보건소·사회복지시설 영양사, 영양학자 및 관계자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평생 건강, 영양사와 함께’라는 주제로 “2006년도 전국영양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 일정은 오전의 특강과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session별로 급식경영의 최신동향과 대응방안, 평생건강시대 구축을 위한 영양사의 과제, 영양교육의 이해와 효과적인 적용, 학교급식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연수강좌가 실시됐으며, 영양사 업무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포스터발표(Poster presentation) 및 구연발표(Oral presentation), 새로운 급식문화를 창출하고 보다 나은 급식영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푸드 코디네이션 작품전시회와 참가회원을 대상으로 특별이벤트가 진행됐다.

이밖에도 영양사의 급식관리에 도움을 주고 단체급식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학술대회와 함께 ‘제13회 식품·기기 전시회’를 진행해 식품 및 기기 관련 제품에 대한 최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자세한 내용은 ‘현장취재’ 69p 참조).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사)대한영양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



국민의 건강 밥상, 우리고기가 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

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축산물 요리의 영양을 배가시키고 맛을 돋울 수 있는 소스 20여종을 개발하여 전국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축산물 소스 레시피 강좌’를 지난 6월 7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울산, 전북, 대전·충남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소스북을 제작, 영양사와 국민에게 보급함으로써 단체 급식소에서 우리 축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우리 축산물 소비가 가정에서도 확대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축산물을 냉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3C 보관법’이 수록된 냉장고 부착용 자석과 ‘우리 정부의 축산물 위생·안전 대책’이 수록된 리플릿을 제작하고 영양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영양교육 행사를 통해 보급하여 축산물 위생관리에 활용하도록 했다. 

인사 소식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06년 7월 10일자)

〈채용〉

• 전무 노천섭

■ (사)한국단미사료협회 (2006년 7월 3일자)

〈채용〉

• 사무국장 정진국

■ 네오바이오(주) (2006년 7월 1일자)

〈채용〉

• Parm,사업부 경상도 북부지역 소장 박성용

■ (주)조인 (2006년 7월 1일자)

〈승진〉

• 인티본부 전무 주재진
• BC본부 상무 김교문